

# 모세와 파라오의 이야기

[www.newmuslimacademy.org](http://www.newmuslimacademy.org)



##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심

하나님은 모세를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집트에서 억압과 고통속에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며 파라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파라오는 폭군이자 독재자로, 그의 억압과 악행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 모세의 기도

하나님께서 성서 꾸란에 모세가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한 기도를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가슴을 넓혀 주셔서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시고, 제 임무를 쉽게 만들어 주소서, 제가 당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할 때 그들이 제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제 일을 도와줄 가족 중 한 사람을 저에게 주시고, 제 형 아론을 그 도우미로 삼아 주세요. 그를 통해 제 결단을 강하게 하시고, 그를 제 사명의 동반자로 삼아 주세요." [20:25-32]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론을 그와 함께 예언자로 세우셨습니다.



##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드럽게 말하라는 명령

모세는 자신이 맡은 사명의 중대함과 그 과정에서 직면할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보호와 가호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사자로 선택하여 네게 보낸 계명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였다. 가라, 모세여, 네 형 아론과 함께 내 능력과 일치를 나타내는 나의 표징을 가지고 가라. 나를 부르고 나를 기억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 가서, 파라오에게 말하라. 그가 불신과 오만함은 한계를 넘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부드럽게 말하되, 그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말하라." [20:41-44]

이 구절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억할 때 그들에게 보호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라오의 폭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에게 부드럽게 말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강한 언행이 오히려 파라오의 악행과 폭력성을 더욱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파라오의 오만함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도 모세는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파라오가 자신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모세는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의 주님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펼쳐 놓으셨고, 그 위에 여행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그 물로 모든 종류의 식물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20:53]

이에 파라오는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모세는 지팡이를 땅에 던졌고, 그것은 곧 뱀이 되었습니다.

## 파라오의 오만함과 도전

파라오는 모세가 보여준 기적을 마법사의 속임수로 간주하고, 자신이 다스리는 땅에서 가장 뛰어난 마법사들을 모아 모세와 결투를 벌여 누가 더 강한지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 지켜볼 수 있는 축제의 날에 대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파라오는 돌아가서 자신의 계략과 속임수를 모은 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대결을 위해 나왔다." [20:60]



## 모세와 마법사들의 대결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단신으로 마법사들과 맞섰습니다. 파라오는 마법사들에게 모세를 이길 수 있다면 큰 보상을 약속하고 그들에게 명예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대결이 이어졌고 모세는 마법사들에게 먼저 그들의 마법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법사들은 지팡이와 뱀줄을 땅에 던졌고, 눈 속임과 환상을 만들어 마치 뱀들의 무리가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명하셨고, 땅에 지팡이를 던지자 거대한 뱀이 되어 마법사들의 모든 마법을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 이슬람을 받아들인 마법사들

마법사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단순한 착시가 아니며, 그들의 능력을 초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마법사들은 하나님의 기적 앞에 항복하며 몸을 굽혔습니다. 마법사들이 모세가 행한 것이 마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엎드려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말했다: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주님,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20:70] 이에 파라오는 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기적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의 교만과 악함은 이것이 자기 왕국을 빼앗으려는 음모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순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선택한 마법사들이었고 대결 전 모세와 그들이 협력할 방법이 없었음을 분노에 사로잡혀 잊었습니다.



파라오는 마술사들에게 자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로 위협했습니다. “내가 너희 각자의 반대편 손과 발을 잘라내고, 너희의 몸을 야자수 나무에 못 박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20:71] 그러나 마술사들은 이미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모세의 진실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과거 불신과 다른 악행의 죄를 사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강요하여 배우고 실행하게 했던 마술의 죄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당신이 약속한 것보다 더 낫고, 그분의 벌은 당신이 우리를 위협하는 벌보다 더 지속적입니다.” [20:73]

파라오는 그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눈으로 본 그였지만 오만하고 우매했던 그는 완강하게 선지자 모세를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하는 핍박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파라오 네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해방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파라오의 백성에게 여러 해 동안 가뭄과 기근을 주어 과일과 농작물의 부족으로 그들을 시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것이 그들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벌임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서였다.” [7:130]



그러나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은 믿기를 거부하며, "파라오의 백성들은 진리에 대한 완고함으로 모세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증거를 가져오든, 우리의 믿음이 잘못 되었다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든, 우리는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7:132]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들의 거부와 완고함에 대한 벌로 나는 그들의 농작물과 과일을 파괴하는 홍수를 보냈으며, 곡식과 수확물을 먹어 치우는 메뚜기와 벌레들을 보냈고, 개구리들이 그들의 접시와 용기를 가득 채워 음식을 망치고 잠을 방해하게 했으며, 그들의 우물과 강물을 피로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씩 분명하고 명확한 기적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만하고 자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모세가 가져온 것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며, 거짓을 포기하지 않고 진리로 인도받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7:133] 결국 파라오는 마음을 바꾸어, 모세에게 이 재앙과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며, 그 대가로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파라오의 추격

자유를 얻은 후, 모세는 파라오의 폭정과 변덕이 그들을 평화롭게 떠나게 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채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서둘러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이 군대, 재산, 거대한 왕국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에게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격분하여 군대와 지도자들을 모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기 위해 함께 출정하였습니다.

탈출 중 모세와 그의 백성은 홍해에 이르렀습니다. 그들 앞에는 망망대해, 뒤에는 추격하는 파라오의 대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꾸란에 이렇게 전하십니다. “두 무리가 서로를 보게 되었을 때, 모세의 백성이 말했다, ‘우리는 틀림없이 붙잡힐 것입니다!’ 파라오와 그의 사람들이 모세와 그의 백성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서로가 반대편에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모세의 백성은 말했다, ‘분명히 파라오와 그의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며 우리는 그들 앞에 무력합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에게 말했다: ‘그것은 당신들이 상상한 바와 같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지하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여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26:61-62]



## 홍해의 갈라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로 바다를 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행하자 눈앞에 홍해가 갈라져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를 건너 안전한 곳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심취하여 바다가 그와 그의 군대를 위해 갈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바로 추격에 나섰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안전한 곳에 도달하고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 지점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도록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세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그들 중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 후 나는 파라오와 그의 백성을 바다에 빠뜨려 그들을 멸망시켰다.” [26:65-66]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권능과 충성된 종들을 위한 신성한 보호와 돌봄을 보여주셨습니다.